

# 유지경(1576~1650) 출토복식에 나타난 17세기 중기 의복 특징에 관한 연구\*

A Study of the Characteristics of Costumes in the Mid-17th Century:

Ryu Ji Kyung's Costumes

광주대학교 의상디자인학과  
교 수 안 명 속

Department of Fashion Design, Gwangju University  
Professor : Myung sook An

## ◀ 목 차 ▶

- |                             |                      |
|-----------------------------|----------------------|
| I. 서론                       | IV. 유지경 묘의 출토복식 바느질법 |
| II. 문화유씨 묘의 출토복식 종류와 조형적 특징 | V. 결 론               |
| III. 출토복식의 연대추정의 특징         | 참고문헌                 |

## <Abstract>

The number of Ryu Ji Kyung's costumes that have been discovered is small but includes various kinds of coat. These coats have become important clues when trying to determine styles of coat that were present in the mid-17th century. The composition of the costumes found were various, including unlined, lined, padded and quilted variations. Unlined clothes were sewed using broad-stitching, hemming, half backstitching, and backstitching. The unique sewing style of the 17th century was shown in Ryu Ji Kyung's costumes. Seams on the back of one coat were not connected but rather sewed as a whole because of the width of the cloth. There was a more elaborate sewing style on lined clothes than on unlined clothes, alongside the use of selvage on the reverse of the costumes, marking the face not by using other clothes, but by the sewing line. Because of their kit types, the width of the sleeves, the presence of a Cheolrik string, the ratio of the upper jacket to the bottom skirt, and the width between the armpits and bottom hems in Jungchimak, Ryu Ji Kyung's clothes can be used as exemplary models of mid-17th century clothing.

**주제어(Key Words)** : 출토복식(excavated costume), 단령(Danryung), 직령(Jikryung), 도포(Do-po), 중치막(Jungchimak), 철릭(Cheolrik)

**Corresponding Author** : Myung sook An, Department of Fashion Design, Gwangju University, 592-1 Jinwol-Dong, Nam-Gu, Gwangju City, 503-703, Korea Tel: +82-62-670-2348 E-mail: msan@gwangju.ac.kr

\* 이 연구는 2011년도 광주대학교 대학 연구비의 지원을 받아 수행하였음.

## I. 서론

2009년 4월 17일 전남 나주 다시면 가운데리에서 묘 이장 중 문중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조사에 들어갔다. 묘주는 문화유씨 유지경(柳持敬, 1576~1650)으로 생전에 수군절도사와 절충장군(折衝將軍, 정3품)을 역임하였던 인물이다.

출토유물로는 긴저고리 1점, 중치막 2점, 철릭 2점, 도포 1점, 대창의 1점, 직령 1점, 단령 1점 등과 과두, 벽복, 악수, 오낭, 모자, 베게와 조대 및 지요가 있었다.

본 출토유물은 출토 후 거의 1년여 만에 광주 민속박물관에서 2010년 4월 14일 (주)씨엔티 경담연구소에 보존처리를 의뢰해 2010년 10월 13일 광주민속박물관으로 새단장 후 돌아왔다. 문화유씨 유지경의 묘역 출토 복식의 경우, 오염 정도는 심하지 않았으나 찢김, 분리, 손실 등으로 훼손이 심하

게 나타난 유물이 많았다.

본 유물에서 특징적인 것은 대창의의 겹감, 안감, 수구 안감에 사용된 옷감이 다른 것, 단령에도 소재는 문능(紋綾)이지만, 뒤쪽 무 부분은 문단(紋緞)을 사용한 것 등이다. 그 외에도 분리소매의 대창의, 육합모가 아닌 한 판으로 구성되었고 안감을 실누비로 누빈 모자, 길짐승흉배 등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출토복식

9점을 통해 17세기 남자 포류의 시대적 특징 및 바느질법을 살펴보고자 하겠다.

## II. 문화유씨 묘의 출토복식 종류와 조형적 특징

본 출토복식은 저고리 한점을 포함해 상의인 포류로 옷깃



소색무명솜누비저고리



소색무명겹중치막



갈색명주솜중치막



소색모시홀철릭



갈색향라홀도포



갈색문능겹대창의



갈색문단홀철릭



소색명주홀직령



갈색문능홀단령

<그림 1> 문화유씨 출토복식

〈표 1〉 출토복식의 부위별 치수(cm)

종류	부위	길이	화장	뒤폭	진동	고대	깃		겉섶		무		옆트임
							너비 (겉/안)	길이 (겉/안)	너비 (상/하)	길이 (내/외)	너비	길이	
소색무명솜누비저고리		91	103	52	31	19	11/6.5	41/37	20/29	69/54	11.5	59	34
소색무명겹중치막		131.5	114	56	28	19	10.5/6.5	49.5/39.5	20/48	112/97	22	98	80
갈색명주솜중치막		131	116	44	30	18	12/8	47/38	19/45	111/100	30	96	77.5
소색모시홀철릭		130.5 (47.5/83)	131	55	28	20	12/6.5	50/37	17/23	23/13	-	-	-
갈색항라홀도포		138	146	58	28	20	12/6	52/42	23/50	114/106	44	106	뒤트임 114
갈색문능겹대창의		138	120	54	30	21	12/8	49/41	22/48	120/109	27	104	뒤트임 90
갈색문단홀철릭		136 (46/90)	126	60	28	20	11/6	45/39	21/23	30/15	-	-	-
소색명주홀직령		126	83	53	30	19.5	12/6	47/41	21.5/46.5	111/100	43	103	
갈색문능홀단령		139	113	53.5	30	23	6/6	53/43	19.5/53	120/144.5	44	109	

은 가장 전형적인 갈깃형을 나타내고, 길은 모두 직선길, 소매는 저고리의 사선형 소매와 소색모시홀철릭의 직배래를 제외하고 나머지 포류는 모두 광수형인 두리소매형이다. 본 출토복식의 종류는 〈그림 1〉과 부위별 치수는 〈표 1〉을 참고한다.

1. 소색무명솜누비저고리

소색무명솜누비저고리는 비교적 상태가 양호하며, 옷길이가 91 cm로 상당히 긴 저고리이고, 전형적인 조선 중기 양식인 갈깃에 직선길이다. 소매형태는 사선배래이고 사다리꼴무가 달려있으며 옆트임이 34 cm 크기로 있다. 저고리 전체를 0.7 cm 정도로 곱게 누볐다.

2. 소색무명겹중치막

중치막은 2점 모두 갈깃에 광수형 소매로 소색무명겹중치막은 다른 출토지의 창의와 비슷했으나 갈색명주솜중치막은 크기가 상당히 작았다. 고운 무명으로 제작된 겹옷으로 바느질이 상당히 섬세하고 정교하게 되어 있다. 의복의 상태는 찢김이 심하고 겉자락 일부가 분리되어, 보존처리시 간단한 보수작업이 된 상태이다. 본 출토 중치막은 무와 80 cm 크기의 옆트임이 있고, 소매도 넓었다.

3. 갈색명주솜중치막

솜중치막은 명주로 만들어졌고 많은 부분이 손상되었고, 그로 인해 내부 솜이 다 드러났다. 겉깃 머리 부분이 손상되었으나 안감이 남아 있어 갈깃 형태를 알 수 있었다. 다른 출

토 포류에 비해 뒤폭이 44 cm로 남자 포로서는 매우 좁았으며 외관으로 보기에 슬림한 형태였다.

4. 소색모시홀철릭

모시홀철릭의 옷길이는 130.5 cm로 상의는 47.5 cm, 하상은 83 cm로 1:1.75 비율이다. 치마 폭은 12폭이며 치마에 0.8~1 cm 정도의 주름이 허리 부분에만 잡혀있다. 소매는 통수형으로 17세기보다 이른 시기의 형태를 나타낸다. 철릭의 소매도 시기가 늦을수록 광수형 두리소매를 띠고, 같은 출토유물 중 갈색문단홀철릭은 17세기 후반의 철릭소매인 두리소매이다.

5. 갈색항라홀도포

출토의복 중 도포, 철릭, 직령, 단령은 시신에게 함께 입혀진 채로 고행 오염물질에 의해 고착되어 출토 당시는 분리할 수 없었다. 도포는 일팔로 나온 유물 단령 오른쪽 옆자락에 붙어 있었고, 오염과 훼손이 심했다.

홀도포로 겉감은 항라, 선단과 바대는 명주로 되어 얇게 비치었다. 출토 도포의 특징은 갈깃에 소매는 두리소매이고 뒤중심이 트여있으며 한판이 달려있고 겹고름과 안고름이 달려있다.

섶선의 위치는 거의 중앙에 있으며 고름도 짧은 고름이며, 한판이 있는 유형으로 한판의 훼손도 심했다. 홀옷이므로 어깨, 등, 겨드랑이에 바대를 대었다. 뒤트임이 114.5 cm 있었다.

6. 갈색문능(紋綾)겹대창의

유물 대창의는 겹으로, 길감은 작은 화문능, 안감은 큰 화문능으로 문양이 다른 소재를 사용하여 만들어졌다. 대창의는 특히 포의 밑도련 부분이 많이 훼손되었다. 철릭, 직령, 단령과 함께 입혀진 채로 오염물에 의해 고착되었고, 일괄로 나온 유물의 가장 안쪽에서 나온 의복이다. 철릭처럼 왼쪽소매가 분리되어 매듭단추가 6개 달려있다. 소매너비는 44 cm로 넓은 광수형이다.

7. 갈색문단(紋緞)홀철릭

홀철릭으로, 길감은 윤보문단, 수구와 하상의 도련 안단은 명주를 사용하였다. 상태도 양호하였고 양쪽 소매가 모두 분리되었고, 하상의 주름은 허리 부분만 잡힌 것이 아니라 치마 전체적으로 2~3 cm 크기의 주름이 위에서 아래까지 모두 잡혀있었다. 포폭의 너비가 65 cm 너비여서 치마 폭수는 7폭으로 연결되었다. 옷길이는 136 cm로 상의와 하상의 길이는 46 cm, 90 cm로 약 1:2 정도의 비율이다.

대창의, 직령, 단령과 함께 입혀진 채로 오염물에 의해 고착되었고, 직령, 단령의 안쪽에서 나왔다. 의복 중 수거 당시 고착된 물질에 의해 분리가 되지 않고 통째로 수거되었는데, 살펴보면 갈색문능겹대창의- 갈색문단홀철릭-소색명주홀직령-갈색문능홀단령 순서로 시신에게 입혀져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옷길이는 136 cm로 상의와 하상의 길이는 46 cm, 90 cm로 약 1:2 정도의 비율이다.

8. 소색명주홀직령

직령은 명주로 만든 홀으로 단령의 내의로서 무가 겹쳐져 있었고, 상당히 훼손이 많았다. 직령은 것을 제외하고는 단령과 거의 비슷한 형태였으나 단령의 화장 113 cm에 비해 30 cm가 짧은 83 cm 이다. 완전한 옷이라기 보다는 단령의 내의용으로 제작되어 단령과 직령은 한 벌의 옷으로 만들어서 입혀졌다.

9. 갈색문능(紋綾)홀단령

홀단령으로, 길감은 화층, 윤문능으로 무는 문단을 사용하였다. 홀으로 된 직령을 내의로 사용하였다. 겉옷인 단령과 속옷인 직령을 각각 홀으로 만들어 어깨와 무에서 꿰어 접단령으로 만드는 경우는 다른 출토의복(송미경, 2007)에서도 나타나는 현상이다. 단령의 무는 넓은 사각무로 끝이 뾰족하며 앞, 뒤의 크기가 차이가 있다. 소매의 형태는 두리소매이다.

단령에는 흉배가 가슴 앞과 등 뒤에 달려있으며 직금된 문양은 정확하게 알 수 없으나 사자흉배인 듯하다. 출토 당시 조대는 시신의 의복인 단령 위에 매어져 있던 것을 수거한 것이다.

갈색 단령에 매었던 가는 조대는 너비 0.5 cm, 길이 325 cm이며 한 쪽 끝이 45 cm 끊어져 있다.

10. 갈색무문능(無紋綾)겹누비 소모자

갈색무늬가 없는 능을 사용한 모자로 길감은 무문능이고 안감은 두꺼운 무명이었으나 파손이 심했다. 안감의 누비방식이 숨을 넣지 않고 실로 누빈 실누비이다. 다른 출토 모자들과는 달리 소모자 뒤쪽의 목부분에 천이 덧 달려있다.

모자의 앞길이는 23 cm이고 뒤에 10 cm의 덧천을 대어 뒤길이는 33 cm이며, 모자 너비는 아랫부분이 30 cm이며 뒤에 덧천의 너비는 18 cm 크기이다.

실누비(그림 2)는 흙질로 땀은 0.2 cm 크기이며 0.3 cm 간격으로 가로로 누벼졌다. 겉에 나타난 실누비는 아주 정교하지는 않은 흙질이었으나 안쪽으로는 거의 바늘땀이 나타나지 않고 드물게 있었다. 모자 안쪽 테두리에 0.8~1 cm 안단을 대었고 감침질로 처리하였다.

김은정과 강순제(2007)는 소모자를 감투라는 용어로 사용하고, 조선 초중기의 남녀 출토 유물에서 다수 확인되는 소모자와 같은 것으로 분류하고 있다. 대부분의 출토유물에 있는 소모자들은 형태가 챙이 없고 머리의 상부를 잘 덮어쓰는 모체만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대부분 육합모 형상을 보



갈색명주겹누비 소모자

실누비(모자 안쪽)

가로로 누벼진 실누비

<그림 2> 실누비소모자와 실누비

〈표 2〉 중치막의 뒤품과 밑단너비의 비율

비율	분묘	이응해 (1547~1626)	장기정씨 (1556~1614)	김확 (1572~1633)	유지경 (1576~1650)	김여은 (1596~1665)	정재후 (1624~1695)
뒤품:밑단		1:1.88~2.13	1:1.77	1:1.47~1.79	1:2.14(소색) 1:1.81(갈색)	1:1.4~1.62 (이은주, 조효숙, 하명은, 2005)	1:1.23~1.30

인다. 그 외에 모자 꼭대기에 매듭장식을 하거나(이은주, 1998), 육변에 윤대를 두르거나(광주민속박물관, 2000; 안동대학교박물관, 2000) 끈이 달린(문화재청, 2006; 석주선기념민속박물관, 2002)양식이 있었다. 본 출토유물의 소모자는 특이하게 앞의 다른 출토 소모자의 형태적 특징과는 달리 뒤 목덜미에 천이 하나 더 붙어있고, 육합모도 아니고, 윤대도 들려져 있지 않다. 앞과 뒤 각 1장의 천으로 된 천을 마름질 하여 붙이고, 목 뒤로 아래 부분에 다시 한 장의 천을 덧대었다. 안감 무명은 겉감과 달리 목 아래 따로 붙이지 않고 통으로 마름질 되었다.

### III. 출토복식의 연대추정의 특징

#### 1. 저고리

16~17세기 출토저고리는 구성요소뿐 아니라 각 요소의 형태 역시 다양하다. 이 시기 저고리 중 칼깃저고리 길의 형태는 사선형과 직선형도 있으며, 소매는 사선소매이고 트임이 있는 경우도 있다. 저고리의 길이는 대부분 40~50 cm, 60~70 cm가 주를 이룬다(장인우, 이춘계, 1995). 본 출토저고리는 무명으로 솜을 두어 만든 옷으로 칼깃에 사선배래, 직선길로 17세기 양식을 나타내나, 옷길이가 91 cm로 긴 것은 이 시기 저고리로는 특이하다.

#### 2. 중치막과 (대)창의

중치막 유물은 임란 후 17세기의 유물부터 확인된다. 조선 전기에 입혀졌다고는 해도 아직까지 전기의 유물은 현존하는

것이 없다(경기도박물관, 2003). 일반적으로 창의는 트임 유무, 소매너비, 무의 유무, 장식선의 유무에 따라 대창의, 소창의, 중치막, 학창의로 구분하였으나, 조선중후기 출토유물의 경우에는 무나 소매를 기준으로 해서 분류하기에는 제한이 있어 최근에는 옆선이 트인 경우는 중치막, 뒷자락에 트임이 있고 소매가 넓은 경우는 창의로 분류(윤미화, 1982)한다.

중치막에서 무가 있고 없음은 '자락 밑단의 너비'와 '사용되는 옷감의 너비' 등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표 2〉에서와 같이 17세기 중치막의 밑단 너비는 점차 좁아지는 경향을 보여, 뒤품과 밑단의 비율이 17세기 후기로 갈수록 비율이 작아진다. 김위(1618추정) 묘에서 수습된 몇 점의 중치막에서 옷감의 너비가 무의 유무를 결정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즉 밑단 너비가 42 cm, 50 cm인 중치막에 무가 없는데 이는 밑단 너비 이상으로 넓은 폭의 옷감을 사용하였기 때문이다. 이 분류에 따르면 밑단의 너비와 옷감의 너비에 따라 무의 유무가 결정되므로 무의 유무로 중치막을 설명하기보다는 밑자락의 넓고 좁음의 변화로 시대적 특징을 설명하는 것(경기도박물관, 2003)이 더 타당할 것이다.

#### 3. 도포

도포는 시기에 따라 깃은 칼깃에서 후기로 갈수록 동그레 깃으로 변화하고, 소매는 두리소매로, 길쭉은 이중섶에서 단섶으로 변화하며 섶선의 위치는 초기에는 중앙에 위치하던 것이 점차 착용자의 왼쪽으로 이동한다. 고름도 오른쪽 옆선 가까이의 겨드랑이 아래 부근에 달리던 것이 점차 중앙으로 이동하고 고름의 형태도 좁고 짧은 고름에서 길고 넓은 고름으로 변화한다(홍나영, 2008). 전삼(展衫)이라고 하는 한판



단령 흥배(뒤)



조경(1541~1609)  
해치흥배(앞)



신경유(1581~1633)  
사자흥배(앞)



김여은(1596~1665)  
길짐승흥배(앞)

〈그림 3〉 단령의 흥배

〈표 3〉 단령의 깃너비( cm)

묘주명	고운 (1479~1530)	심수륜 (경기도박물관, 2004) (1534~1589)	장기정씨 (1565~1614)	이용해 (1547~1626)	김확 (1572~1633)	문화유씨 (1576~1650)	김여온 (1596~1665)
깃너비	2.7	3.5~4	3.5	5	5/5.5	5.5	6

(汗版)은 어깨바대가 등까지 길게 연장되어 내려와서 앞길의 무와 연결되는 부분으로 도포의 형태를 결정짓고, 시대를 구분하는 데 중요한 단서가 된다. 한판이 있는 유형은 홀로 되어 뒷길에 직접 앞길의 무를 고정하기 어려운 홀도포에서 많이 보인다(홍나영, 2008). 출토 도포는 칼깃에 두리소매이고, 설향의 위치는 거의 중앙에 있으며 고름도 짧은 고름이며 한판이 있는 유형이다.

도포의 소매너비는 유물의 연대를 판정하는 단서로 사용되기도 하는데 출토 도포는 소매너비가 44 cm로 시기가 약간씩 차이가 나지만 시기가 빠른 장기정씨 도포의 소매(33 cm, 43 cm)보다는 소매너비가 넓고, 조금 늦은 시기의 정태제(55.5 cm)나 홍극가(52 cm) 등의 도포보다는 소매너비가 약간 좁은 것으로 나타나 17세기 중기를 넘어가는 시기적 특징을 확실히 나타내고 있다.

#### 4. 철릭

철릭은 깃 형태와 상·하의 길이나 비례, 소매의 형태 등을 통해 시대를 알 수 있다. 철릭은 조선초기에는 1.2:1로 상의가 더 길었던 것이 후기로 갈수록 하상이 더 길어지는 양상을 띤다. 출토철릭은 2점으로 상의와 하상의 비율이 모두 1:1.8~1:2 정도이므로 17세기 중기 양식을 보인다. 비슷한 시기의 이용해장군(1547~1626)묘 출토 철릭의 상의와 하상 비율을 보면 거의 비슷하다(충주박물관, 2004). 주름너비는 본 출토철릭보다 1 cm 정도 더 크게 잡았다. 김확 철릭도 9점이 있었으며 상의와 하상의 비율은 1:1.9~2.1의 비율을 나타내고 주름의 너비는 2 cm 내외이다(송미경, 2007). 소매형태 또한 조선 초기의 착수형, 통수형에서 임진왜란 이후에는 봉어배래형을 띠다가 이후 철릭의 소매는 점차 넓어져 두리소매로 변화한다. 또한 17세기 후기 이전의 양상인 철릭의 쌍고름도 본 출토철릭에서 나타났다.

#### 5. 직령

직령은 깃이나 앞뒷길의 옆트임에 연결된 무의 형태로 시대 구분을 하는데, 무는 사다리꼴무로 뒤젓힘형으로 17세기 말기경에 보이는 양상이다. 출토직령의 소매는 단령, 철릭과 비슷한 두리소매를 이룬다. 따라서 소매모양이나 무를 보더라도 17세기 중기 이후의 양상이다.

#### 6. 단령

17세기 중기이후를 16세기후기~17세기전기의 복식과 비교할 때 공통적으로 수습된 포류는 단령과 직령, 철릭이나 형태에 있어 변화가 있다. 대표적으로 17세기 이후 단령과 직령의 무 형태가 변화하였다. 뒤젓힘형 무의 등장이라 하겠다.

또한 17세기 전기 남자 포류의 특징적인 변화는 품이 좁아지며, 소매 모양이 변화되는 것이다. 특히 17세기 전기 소매의 형태는 진동에서 급하게 경사지며 넓어지고, 수구로 갈수록 완만한 두리소매가 되는 것이 특징이다. 이는 소창의를 제외한 모든 포류에서 적용된다. 그러나 17세기 중기가 넘어가면서 넓은 광수형 소매를 이루며, 출토 단령의 소매도 이에 해당한다.

또한 단령의 깃너비는 5.5 cm로, 출토단령보다 조금 이른 이용해장군묘 출토단령은 5 cm이고 시기가 조금 늦은 김여온(1596~1665) 출토 단령의 깃너비는 6 cm로 17세기 중기 이후 단령의 깃너비는 5 cm가 약간 넘는 깃의 형태를 갖고 있었음을 〈표 3〉을 보아도 알 수 있다. 조선초기일수록 단령의 깃너비는 좁았다.

흉배의 크기는 가로, 세로 각 33 cm 정사각형 흉배로, 보통 해치흉배를 다는 문관 대사헌은 예외적인 경우이지만 문관은 하늘을 나는 날짐승흉배를, 무관은 땅을 딛고 다니는 용맹을 상징하는 동물의 길짐승흉배를 하는 것이 조선시대 흉배제도의 기본적인 원칙이었다. 따라서 김여온, 신경유 등의 흉배나 유지경의 흉배는 그가 무관임을 입증하는 단서가 된다. 김여온의 흉배는 해치인지 사자인지 형상을 정확하게 알 수 없어 길짐승흉배라고 명명했는데(이은주 외, 2005), 유지경 흉배는 정확한 모습을 알 수 없으나 때 뿔이 없고 등근 얼굴에 긴 주둥이 등이 없는 것으로 보아 신경유 흉배와 비슷한 형태의 사자흉배로 보인다.

### IV. 유지경 묘의 출토복식 바느질법

출토유물의 수량은 그리 많지 않으나 다양한 포류가 출토되었고, 바느질도 고운 편이고, 식서의 사용과 온박음질, 식서와 푸서의 바느질 방법 등 다양한 바느질법을 살펴 볼 수 있었다. 출토 유물의 부위별 바느질은 〈표 4〉와 같다. 저고리와 포류 모두 어깨솔기는 시접없이 꼰로 되어 앞뒤 한 장으로 연결되었다.

〈표 4〉 출토복식의 부위별 바느질

종류	부위	등술	섶(겉/안)	옆	진동	배래	무	안단처리/장식박음	주된 바느질
소색무명솜 누비저고리		오른쪽	길쪽/길쪽	길쪽	길쪽	뒤쪽	-	-	흡질
소색무명겹중치마		온박음질/가름술	가름술/가름술	길쪽	길쪽	뒤쪽	길쪽	고운흡질/장식상침	고운 박음질
갈색명주솜중치마		흡질/제천을 꼬집어박음	길쪽/길쪽	길쪽	길쪽	뒤쪽	길쪽	-	흡질
소색모시홀철릭		가름술	길쪽/-	가름술	가름술	뒤쪽	-	안단/감침질	흡질
갈색항라홀도포		가름술	길쪽/길쪽	길쪽	길쪽	통솔 뒤쪽	길쪽	감침	흡질
갈색분능겹대창의		가름술	길쪽/길쪽	길쪽	길쪽	뒤쪽	뒤쪽	-	흡질
갈색문단홀철릭		가름술	가름술/-	가름술	가름술	통솔 뒤쪽	-	감침질	박음질
소색명주홀직령		솔기없음/ 골로 마름질	길쪽/길쪽	길쪽	길쪽	뒤쪽	길쪽	감침질	흡질
갈색분능홀단령		오른쪽/제천을 꼬집어박음	가름술/길쪽	길쪽	길쪽	뒤쪽	길쪽	감침질	흡질

1. 소색무명솜누비저고리

소색무명솜누비저고리는 상태가 양호한 편으로 누비웃이 나 바느질도 고운 편이다. 솜웃이므로 전체적인 바느질은 흡질하였으며, 솔기처리는 길과 섶, 길과 무 연결은 겹섶쪽, 안섶쪽 모두 길쪽으로 하였다. 등술 솔기는 입어서 오른쪽으로 하였고, 옆선과 진동은 길쪽으로, 배래는 뒤쪽으로, 소매 폭과 폭 연결은 모두 길쪽으로 향하였다. 누비저고리 시접 분량은 전체적으로 0.5~0.7 cm 정도 크기로 하였다.

2. 소색무명겹중치마

겹웃인데 바느질은 정말로 섬세하고 곱다. 깃, 소매 수구, 앞·뒤도련, 겹섶·안섶 선단 부위에 1cm 안에 13쌍 정도의 바늘땀이 있을 정도로 정교하고 고운 흡질로 옷 전체의 가장 자리를 바느질하였다.

바느질 방법은 식서와 식서가 연결되는 부분은 온박음질로 곱게 바느질한 후 가름술로 솔기처리 하였다. 섶, 길, 소매 부분의 연결은 포폭 크기 그대로 사용하였기 때문에 식서이므로 가름술 처리하였고, 무와 길은 푸서가 사용되어 솔기 방향은 길쪽으로 향하였다.

3. 갈색명주솜중치마

솜웃으로 등술부분은 따로 시접을 두지 않고, 현대에 깨까바느질로 선만 표시하듯이 골로 된 한 장의 폭을 가운데만 0.2 cm 정도 꼬집어서 흡질로 바느질하였다. 포폭이 넓어 굳이 따로 연결하지 않아도 되므로 현대의 등술 솔기방법처럼 바느질선만 내는 것이 이때부터 생긴 것이 아닌가 한다. 또한 포의 아랫단 부분에 삼각형 형태로 바느질만하여 선을 표시한 것도 이런 의미에서 너무 넓어 보이는 포를 분할해 보

이기 위한 것이었나 하는 추측을 해 본다. 겹감, 솜, 안감을 함께 겹에서 흡질로 상침하여 바느질선만 만들었다. 앞의 양쪽 무와 안섶, 그리고 뒤쪽 양쪽 무 부분에 좁고 긴 삼각형 표시가 있어 미적으로 보기에 그냥 넓은 천보다는 면분할이 되어 보기에 아름다웠다. 동정은 감침질로 달았다.

4. 소색모시홀철릭

옆선 부분에 식서의 소매폭과 길은 연결할 때 식서 부분은 그대로 두고, 식서가 아닌 솔기는 말아서 감침질하여 자연스럽게 가름술이 되도록 바느질하였다. 옛쌈솔처럼 단단하게 말아 솔기부분이 탱탱하였다. 식서와 식서 부분은 가름술 처리하였다. 안섶 쪽 치마부분은 안단없이 식서를 그대로 두었다.

5. 갈색항라홀도포

홀도포는 한판이 붙어 있는 옷으로 다른 옷들에 비해 바느질이 곱지 않았다. 홉웃이고 옷감도 얇은 항라로 많은 부분이 손상되었고, 바대를 등, 어깨, 겨드랑이에 대었고 시접은 0.5~0.7 cm 두고 감침질 하였다. 앞길은 섶과 길만 연결된 것처럼 보이나 무가 뒤로 넘어가 연결된 구조이다. 뒷길 중심 사이는 2 cm 정도 떨어져 있고 뒷길과 무 연결부위 시접은 모두 무쪽을 향해 있다. 겹섶 선단은 5 cm 정도의 단단을 대었고, 안섶 선단은 식서를 그대로 두었다. 소매부리는 5.5 cm 정도를 제천으로 넘겨서 안단처리를 하였고 감침질 하였다. 전체적인 바느질은 흡질로 0.5 cm 정도로 정교한 바느질은 아니었다. 뒤에 붙은 한판은 중심을 꼬집어 박아서 오른쪽으로 솔기처리를 하였고 양쪽에 붙은 무는 길쪽을 향하였다.

6. 갈색문능(紋綾)겹대창의

겹옷으로 훼손이 심해 겉감과 안감의 옷감이 삭은 부분이 많아 겉과 안이 뜯어져 있어 바느질과 솔기처리 등을 쉽게 확인할 수 있었다. 대창의 전체적인 바느질은 겹옷으로 0.2~0.3 cm 정도의 홈질을 주로 하였고, 시접은 0.5~0.7 cm 정도 두었다. 겉깃과 안깃 연결은 고운 홈질로 바느질하고, 안깃은 감침질 하였다.

7. 갈색문단(紋緞)홀철릭

유물 홀철릭의 바느질은 다른 유물에 비해 바느질이 상당히 고왔으며 박음질이 많이 사용되었고, 가름솔 시접처리가 많이 사용된 것이 특징적이다. 겉섶과 길의 연결도 섶은 식서로 길은 푸서로 마름질하여 아주 고운 온박음질로 박은 후 한쪽은 식서로 한쪽은 0.5 cm 시접 크기의 푸서를 그냥 두고 가름솔 처리하였다. 진동은 식서와 식서를 연결해 가름솔 처리하였다. 소매 배래는 반박음질로 바느질 한 후 통솔로 하였다. 등바대는 모두 식서로 포폭을 그대로 사용하고 가장자리도 바느질하지 않고 그냥 두었다. 안단처리는 옆선부터 박고 밑단을 처리하였고 감침질로 바느질하였다.

8. 소색명주홀직령

직령은 받침옷으로 단령의 내의처럼 시접처리 등도 안감처럼 처리가 깔끔하지 않아 풀리는 푸서 부분도 그대로 두었다. 직령의 소매 폭 연결이나 배래부분의 바느질은 홈질로 하고 시접이 홀웃이고 식서도 아닌데 푸서를 그대로 두어 지저분하게 되어 있다. 겉섶 부분은 제물천으로 3.5 cm 정도 넘겨 안단을 감침질로 처리 했고, 안섶 부분은 식서로 그냥 두었다. 전체적인 바느질은 홈질이나 고운 홈질이 아니고 시침하듯이 한 홈질이었다. 무 처리는 식서를 사용하여 앞에서 뒤로 넘어가게 하여 단령의 무 위에 두고 감침질하여 연결하였다. 뒷길은 53 cm 포폭을 그대로 사용하여 등솔 부분을 따로 연결하거나 꼬집어 박지 않고 폭 그대로를 사용하였다.

9. 갈색문능(紋綾)홀단령

단령은 바느질이 상당히 고왔으며, 홀웃이므로 겉섶 선단은 4 cm 판단, 무는 제물단으로 8 cm, 10 cm, 11.5 cm 등으로 안단을 대었고, 수구는 판단으로 안단처리를 하였다. 안단의 전체적인 감침바느질과 시접처리 등은 굵지 않았다. 뒤중심은 0.3 cm 정도를 꼬집어 박아서 입어서 오른쪽으로 시접을 향하게 하였고, 포폭은 57 cm 정도를 사용한 것 같다.

V. 결론

유지경의 출토복식은 수량은 적으나 다양한 포류가 출토된 점이 특징적이다.

중치막과 창의류가 출토된 점을 통해서도 조선 중기인 17세기에 해당하는 옷임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상의류인 저고리와 포류가 모두 갈깃형이었고, 대부분의 소매는 광수형이고, 길은 직선형 길인 점도 연대추정에 중요한 점이다.

17세기 중기 양식임을 나타내는 특징으로는 다음과 같다. 철릭의 쌍고름 사용과 1:1.8~1:2 정도의 상의와 하상 비율, 중치막의 뒤폭과 밑단너비의 비율이 1:1.81~2.14로 오히려 17세기 초기와 비슷한 양상을 나타내 17세기 후기의 의복과는 차별이 된다. 도포는 소매너비가 시대구분의 중요한 단서가 되는데 유지경과 비슷한 시기의 출토도포의 소매너비가 대부분 40 cm가 조금 넘는 크기이나 그 이후 시기부터는 소매너비가 커지는 경향이 있다. 단령의 깃너비는 조선 초기에 좁았으나 17세기 이후로 갈수록 5~6 cm 정도의 너비로 정착되는데, 유지경묘의 단령의 깃너비는 5.5 cm 이다.

특징적인 바느질법은 포폭이 넓어 등솔을 잊지 않고 중심을 꼬집어 박은 점, 홀웃보다 정교한 겹옷 바느질, 식서와 식서로 등솔에서 가름솔 처리한 점, 가름솔 처리가 많이 사용된 점, 판천을 대지 않고 바느질선으로 면 형태 표시한 점 등에서 17세기 복식의 일면을 볼 수 있었다. 또한 유지경 출토복식의 구성은 홀웃, 겹옷, 솜옷, 누비옷 등 다양하였고, 홀웃의 바느질은 홈질, 감침질, 반박음질, 온박음질이 사용되었고, 겹옷은 홈질, 온박음질과 감침질, 솜옷은 홈질과 감침질, 장식상침 등이 주로 사용되었다. 솔기처리는 나름대로 원칙이 있어 홀웃은 식서와 식서가 만나는 부분은 가름솔 처리를 하였고, 식서와 푸서 바느질은 가름솔로 하여 식서는 그대로 두고 푸서는 말아감침질하기도 하고 푸서부분을 그대로 놔두고 그냥 가름솔로 처리하기도 하였다. 또한 소매배래 등에 통솔을 사용하기도 했다. 겹옷과 솜옷은 대부분 안감이 있으므로 가름솔이나 한쪽으로 꺾어서 보냈다.

■ 참고문헌

경기도박물관(2003). **동래정씨 묘 출토복식 조사보고서**. 용인: 경기도박물관.  
 광주민속박물관(2000). **하천 고운 출토유물**. 광주: 광주민속박물관.  
 김은정, 강순제(2007). 감투에 관한 연구. **복식**, 57(6), 113.  
 문화재청(2006). **문화재대관 중요민속자료 2**. 대전: 문화재청.  
 석주선기념박물관(2002). **남아미라 및 출토유물 연구논총**.



서울: 석주선기념박물관.  
 송미경(2007). 김학묘[1572~1633] 유물을 통해 본 17세기 남자 포에 관한 연구, **복식**, 57(7), 100-102.  
 안동대학교박물관(2000). **안동 정상동 일선문씨와 이용태묘 발굴조사보고서**. 안동: 안동대학교박물관.  
 윤미화(1982). 창의류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은주(1998). 도포양식의 발전에 대한 갈등 기획론적 분석, 서울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이은주, 조효숙, 하명은(2005). **17세기의 무관 옷 이야기**. 서울: 민속원.

장인우, 이춘계(1995). 16·17세기 저고리 형태에 관한 연구. **복식** 24, 42-43.  
 충주박물관(2004). **이용해장군묘 출토복식**. 충청도: 충주박물관.  
 홍나영(2008). “출토복식을 통해서 본 조선시대 남자 편복포의 시대구분”. **복식**, 58(5), 127-128.

---

접 수 일	2011년 7월	25일
심사시작일	2011년 8월	9일
게재확정일	2011년 9월	6일